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V 22일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V 23일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국세청, SM엔터테인먼트 조사 착수... 업계 긴장

해외공연소득 탈루 의혹 제기돼

국세청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연에 업계가 뒤숭숭하다. 업계는 SM이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하며 해외시장에서 독보적으로 활약하는 국내 대표 기획사인 만큼 세무 조사가 다른 대형 기획사에도 불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SM은 20일 "역의 탈세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2009년에 이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 10여 년간 연예계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한류 붐을 타면서 가



이수만 SM회장

수들의 해외 활동이 활발해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획사들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는 판단에 일찌감치 해외 진출에 나서 한류 바람을 일으켰고 효과적인 매니저는 행보를 보였다. 이미 SM은 1990년대 말부터 H.O.T 등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켰고 이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에프엑스, 엑소 등을 글

로벌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SM은 SM 재팬, SM USA, SM 베이징(중국) 등의 지사 또는 에이전시를 설립해 운영했다. SM은 현재 드라마와 예능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하는 SM C&C를 비롯해 노래방 사업을 하는 SM 어뮤즈먼트, 의식업을 하는 SM F&B 디벨롭먼트, 확원 운영 사업을 하는 스타라이트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한류 붐과 함께 사업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국세청은 SM이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해외 공연 소득을 탈루(신고 누락)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음 2월 21일 辛卯)

Table of daily fortune predictions by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sign, a brief prediction,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